

본 연구는 연령대별 위험관리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위험, 간병 위험, 은퇴위험, 사망위험, 소득흐름위험, 재산손해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연금 포함) 가입 현황 및 미가입 사유를 살펴본 후, 어떠한 요인이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위험영역별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체건강, 은퇴준비, 부채상환, 재산손해 관련 위험영역에서는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본인을 위한 간병, 가족을 위한 간병, 실직, 사이버사고 위험영역에서는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 위험에 대해서는 3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 폐업, 사이버사고 위험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위험영역에서는 2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2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각각의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을 조사한 결과, 개별 위험에 대해서 가장 염려 수준이 높은 연령대가 반드시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서도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신체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았지만,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은퇴준비의 경우 염려 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은 반면,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신체건강 및 은퇴준비에 있어서 20대는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연령대의 특성상 다른 연령대보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은퇴시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위험에 대해선 60대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가입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배상책임의 경우도 40대 및 50대는 보험가입이 가장 높게 응답된 위험 대비방법이었다. 간병위험 및 은퇴준비위험과 같이 국가가 위험대비에 개입하고 있는 영역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위험별·연령대

별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을 살펴보면, 위험의 노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 존재하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서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정기건강검진, 명상, 사회활동, 저축, 예방노력, 비밀번호관리 등 금전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대비방법을 가장 높게 응답한 연령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위험 대비방법으로 보험가입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험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을 대체하는 정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위험영역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연금 포함)가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 종목 중에서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60대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은퇴 위험을 보장하는 연금가입의 경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보다 개인연금의 보유율이 높았다.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 종목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풍수해위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사이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보험(연금 포함)가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연령변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의 가입확률은 높아지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가입확률은 낮아졌다.

또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장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는 20대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 및 50대의 보장격차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은퇴자가 예상하는 공·사적 연금의 보장격차와 관련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보장격차 수준을 예상했으며, 20대를 제외하고는 50대의 보장격차가 가장 높았다. 개별연금의 보장격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기에 접어든 60대를 제외하고는 50대가 예상하는 보장격차가 가장 컸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0대가 가장 보장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엔 6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하에서 자신의 보장격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보험가입 분석 결과와 보험 미가입 사유를 연결지어 연령대에 따른 상대적 보장격차를 살펴본 결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연령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여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젊은 연령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리스크관리 교육 등을 통해 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 영역에서 해당계층의 상대적인 보장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연금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임의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개별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을 살펴보고,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실시하되, 연령대 간 차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령대별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시사점은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고찰된 것이며,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엔 설문조사 특성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 연도에 특정 시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자료로 향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